

'지역 교육문제 해결 창구' 기대

전북 교육거버넌스위 출범... 민·관 협력 강화, 교육복지 개선 앞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2층 강당에서 제1회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2층 강당에서 '제1회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학부모·주민의 교육복지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일반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은 당연직 3명, 전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외부위원 18명 등 총 40명이다. 임기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임원진 선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결과

및 운영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2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켜 책상 배치를 하고, 위촉장은 대표자 1인에게만 수여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위원회가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전북교육청과 교육감도 위원회의 제안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들이 더 높은 교육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실용실 창업 동아리 플라즈메이스(팀장 김종운)팀과 창업 동아리 수수(팀장 윤동혁)팀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실력을 입증했다.

전북대 학생들 창업 역량 빛났다

'도전! K-스타트업 2020' 대회 2개 팀 진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에서 육성하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실력을 입증했다.

본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0'의 예선 격으로 열린 교육부의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300'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할 최종 35개 참가팀 중 전북대 2개 창업동아리팀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의 주인공은 전북대 실용실 창업동아리 플라즈메이스(팀장 김종운)팀과 창업동아리 수수(팀장 윤동혁)팀이다. 이들은 본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0'에 진출하기 위한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0'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창업 경진대

회를 단일 브랜드로 연계 통합한 대회로 총 상금이 15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창업 경연 무대다.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도전! K-스타트업 2020' 통합 본선은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본선 대회 전 과정은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창업리그 대상은 3억원 예비창업리그 대상에게는 1억 5,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배준수 창업교육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서도 우리 대학의 우수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쌓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20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전북교육청, 수상작 80점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2020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배려와 감사·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2020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진행했다.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 슬로건(초·중·고 및 교직원), 캠페인사진(초·중·고 및 교직원) 등 4개 분야에서 작품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600점이 접수됐다. 그림일기 280점, 포스터(초) 197점, 포스터(중·고) 40점, 슬로건 82점, 캠페인 사진 21점 등이다.

도교육청은 주제성, 창의·독창성, 표현력, 활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8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은 ▲그림일기 정지우(전주화정초) 학생 ▲포스터 초등 김지윤(이리모현초) 학생 ▲포스터 중·고 장재희(한별고) 학생 ▲슬로건 정보인(전주사일초) 학생 ▲캠페인사진 강진욱(전주평화중) 교직원이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바른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에 활용된다.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공모 주제를 실제 식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2020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전북교육청 "공사대금·임금체불 방지할 것"

9일까지 사전·현장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임금체불 방지 등 지역노동자 및 영세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기간은 2일부터 9일까지 8일 간

으로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10개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유치원 신(증)축 공사 현장 4곳(혁신유치원, 미성유치원, 양현유치원, 세내유치원), 직속기관(전북교육연수원, 대안교육지원센터,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기타 공사 6곳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등과 같은 하도급대금

체불 현황과 임금(노무비) 체불 현황으로, 지난 2019년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사용 실태 파악도 병행한다. 점검 방법은 도교육청 재무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 검토 등의 사전점검을 마친 후, 시설과 건설현장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청년 TLO 전문가 양성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이 하반기 청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r)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자 리진흥원이 지원하는 34억 원 규모의 청년 TLO 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만 34세 미만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북대는 이 사업에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청년 TLO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6개월간 고용계약을 체결, 대학 우수 기술의 민간 이전을 돕고 관련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제2학생회관 준공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지난 1일 제2학생회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우영 총장을 비롯해 윤덕일 동창회장, 이영환 전주부설초 교장,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해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제2학생회관 건립을 함께 축하했다.

제2학생회관은 지상3층의 건물로서 주요시설로는 총학생회실, 동아리관, 다목적홀 등이 있다.

전주교대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배치했고, 건물 내·외장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했다. 특히 점토벽돌과 석재를 주재료로 한 모던 클래식 스타일을 구현했고, 다목적홀 천장에 알루미늄 루버와 조명으로 인테리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